

'007' 시리즈 영화 의상의 시대별 이미지 연출에 관한 연구

장 성 은

서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겸임교수

A Study on the Evolution of Image Making through Costumes in the '007' Film Series

Sung-Eun Jang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eoKyeong University

(투고일: 2008. 9. 30, 심사(수정)일: 2008. 12. 19, 게재확정일: 2008. 12. 31)

ABSTRACT

This research is about the changes in the images of Bond and Bond Girl in '007' Series. And it examined through the social background of England from 1960s to 2000s and the costume in the fil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s the era of young fashion was opened after 1960, there was a big change, but Bond was expressed as a hero who had strong male chauvinism of the English aristocratic circles. However, after 1990s, he wore comfortable clothes and he underwent all sorts of hardships. On the other hand, Bond Girl had the image of a sexual target. However, after 1990s, she had sharp appearance and smart brain. Besides, she had professional ideas of a given work and she was changed into a healthy image.

Second, Bond's job was an English secrete agent, but Bond Girl had no particular job in 1960s. In 1980s, various professional jobs appeared and in 1990s and 2000s, the professional job which was directly related with Bond's duties appeared.

Third, Bond's upper class image was expressed by tuxedo, suit, black, gray, navy, beige, brown, and ivory. His hair was 2:8 parting or Dandy all black style produced his dignified and neat image. After 1990s, he often had casual dress, which created a comfortable image. Bond Girl was expressed feminine style by bikini, underwear, long dress, sky-blue, violet, black, simple costume. After 1990s, she wore a suite, one-piece, or a combat uniform, which showed her professionalism. especially Bond Girl's red dress was used as a psychological color to express temptation, enemy, and betray.

Key words: 007series movie(007시리즈 영화), Jams Bond(제임스 본드), Bond Girl(본드 걸), movie costume(영화의상), a role image(역할 이미지)

I. 서론

영상 미디어의 시초인 영화는 불과 100년 남짓 짧은 역사를 지닌 예술 형태이지만 오늘날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 그래픽, 디지털 기술과 같은 테크놀로지와 결합을 통해 표현 가능성을 확장함으로써 오락성과 산업적 기반을 통해 대중들에게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¹⁾ 영화는 시각적인 영향력이 큰 매체로서 작가나 감독의 의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극적인 효과를 위한 캐릭터의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특히 영화 의상은 영화 속 등장인물의 위치나 성격을 나타내주는 이미지 연출의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줄거리의 전개나 반전 등의 극적 효과를 높여준다. 또한, 영화 의상은 배우들의 역할 도구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극 중 인물의 성격, 개성, 신분, 사회계층은 물론 영화의 이미지, 주제 형식까지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언어라 할 수 있다.²⁾

영화는 다양한 장르가 있어 장르별로 캐릭터의 성격이나 외모, 체형, 의상 등의 보편적인 특징이 있고, 각 장르 속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이미지가 세분화된다. 단편 영화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등장인물의 심리변화나 상황변화를 영화 속 의상을 통해 감지할 수 있으며, 특히 공통된 주제를 기반으로 한 시리즈 영화는 등장인물의 이미지 특징을 시대별이나 시리즈별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리즈 영화 중 46년간 총 21편으로 제작된 영화 '007' 시리즈에서 추구하는 남·녀 주인공의 시대별 이상적 이미지와 역할의 변화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007' 시리즈의 배경이 되는 영국패션의 문헌 자료와 영화 '007' 시리즈 관련서적 및 영화 총 21편의 시각적 고찰을 통해 우선 시대별 영국의 유행경향과 시리즈 속 영화 의상과의 연관성을 비교분석한다. 둘째, 시리즈 속에서 추구 하는 주인공의 시대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한 연출의 변화를 살펴본다. 셋째, 등장인물의 주요 의상 아이템과 스타일, 색상, 문양,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등을 분석하고 시대별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007 시리즈의 배경과 주요 등장인물

007 시리즈는 1962년부터 2006년까지 46년간 총 21편이 제작되어 상영되었으며 전 세계 누적 관객 20억 명을 기록하였고, 2008년 22편 '퀀텀 오브 솔러스(Quantum of solace)'가 개봉될 예정이다. '007'은 영국 작가인 이안 플레밍(Ian Fleming)이 영국 정보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틀로 하여 쓴 첫 소설 '카지노 로열'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총 13권의 '007'소설을 발표하였고 이 소설에 '제임스 본드(James Bond)'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시작되었다.³⁾

영화가 처음 상영되어 시리즈로 이어지는 오늘날까지 시리즈의 공통된 주제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안보를 지키려는 이데올로기 간의 대립구도의 첩보영화이다. 남자 주인공 '제임스 본드'는 이제까지 6명의 배우가 그 역할을 소화하였다.

'제임스 본드'의 상대역인 본드 걸은 보조자 역할로 시리즈마다 배우와 배역이 다르지만, 월등한 외모를 가진 미인으로 영화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보다는 남성들의 관심을 끄는 외모로 대부분 역할 없이 본드와 로맨스로 마무리되는 공통점이 있다.

그 이외 주요 등장인물은 고정배역으로 제임스 본드의 상관인 암호명 'M'과 본드에게 매우 호의적인 여비서 '머니페니(Moneypenny)', 제임스 본드에게 기발한 최신 비밀무기를 제공하는 정보국의 암호명 'Q' 박사가 있다.

007시리즈에서 본드가 상대하는 악당은 소련의 비밀정보기관인 KGB와 지구를 자신의 손에 넣으려고 세상을 교란하거나 대량학살 등을 모의하는 악랄한 스펙터(SPECTRE)의 두목인 블로펠드(Blofeld)이다. 블로펠드의 조직은 뛰어난 조직력과 재정적 힘을 가진 국제적인 범죄조직으로 하얀 페르시아인 친칠라 고양이를 품에 안은 일부모습으로 비밀스럽게 여러 번 등장한다. 이 외에도 테러집단, 마약상, 무기거래상 등이 등장하고 조국을 배신한 러시아 군인, 영국을 배신한 첩보원, 북한장교 등이 등장한다.

영화 속 제임스 본드는 스코틀랜드 태생으로 부모

는 그가 11세 때 사망한다. 옥스퍼드대학에서 법학과 심리학을 전공하는 우수한 학생이었으나 여자친구의 갑작스런 사망 충격으로 학교를 중퇴하고 영국정보부에서 임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차 대전 시 해군장교로 입대하여 전투경험을 하고 중령으로 제대한 후 영국 정보부의 'M'국에 들어가 특수공작을 업무를 맡게 된다. 그는 정보국에서 최고의 특수공작원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필요할 때 살인이 허락되는 '00'번호 중 '007'을 부여받는다. 키 183cm, 76kg의 준수한 외모와 상당한 수준의 미식가로 여성편력이 화려하다. 술은 보드카 마티니와 최고급 샴페인을 즐기며 카드게임에서는 패한 적이 없다. 상류사회 부류임을 암시하듯 스키, 보트, 승마, 펜싱 등 각종 스포츠에 만능이며, 비행기, 모터보트, 오토바이, 행글라이더 등 다루지 못하는 기계가 없다. 위장결혼을 제외하고 한 번의 결혼경험이 있으나 아내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 여행길에 범죄조직에 살해당한다.

007시리즈는 여러 나라에서 촬영되기 때문에 이국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아름다운 해변,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과 바다, 하늘 등에서 펼쳐지는 박진감 넘치는 장면들이 영화의 흥미를 더하게 한다. 특히, 대저택, 카지노, 이국적이고 호화로운 호텔, 기차, 무회의 춤, 수영장, 바닷가, 비키니차림의 아름다운 여성, 영화 오프닝의 화려한 여성의 누드영상들은 빠지지 않고 매 편 등장하는 주요장면이다.

Ⅲ. 007 시리즈 배경의 1960년대 - 2000년대의 영국패션

현대 영국 패션의 정체성은 일반적으로 전통귀족 문화에서 유래한 엄격하고 보수적인 패션문화와 1950년대 이후 스트리트 하위문화로부터 출발한 젊고 혁신적인 패션 문화의 정체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⁴⁾ 이러한 영국 패션의 정체성을 단순 명료하게 표현하자면 모나키(Monarchy)와 아나키(Anarchy)라고 할 수 있다. 모나키적 패션 정체성은 여성이 남성적인 테일러링 정장을 착용하고 모자를 쓰는 클래식한 룩인 트래디셔널 브리티시 룩을 가리키며, 아나키는 무정부 상태, 무질서, 혼란 등을 의미

하는 것으로 아나키의 패션 정체성은 '팝'이나 '스트리트 스타일'에서 보이는 자유로운 영혼을 지니는 실험적인 룩으로서 괴짜 같고 유머러스하며 혁신적인 룩이다.⁵⁾

영국은 본질적으로 계급사회로 아직도 귀족계급이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귀족 사회는 윤리와 격식을 즐기며 스포츠를 생활화함으로써 페어플레이 정신⁶⁾과 신사로서의 태도를 끝까지 지키는 신사도 정신을 중요시 여겼다.⁷⁾ 신사가 갖추어야 할 덕성은 행동과 감정, 말의 자제심, 정직성에 입각한 신의와 결백함, 페어플레이 정신의 공명정대함, 예의범절, 세련된 태도 등이다.⁸⁾

영국의 패션은 남성 정장류를 중심으로 고품질의 소재와 테일러링이 돋보이는 귀족적인 성향을 띤다. 이는 오랜 왕실 문화를 바탕으로 다져진 전통성이 그 뿌리에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초 댄디로 명성을 날린 조지 브럼멜 스타일⁹⁾이 영국 신사복의 기본이 되었고, 오늘날의 남성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¹⁰⁾ 특히 정통 신사복의 대명사로 불리는 브리티시스타일은 영국의 고급 양복점이 모여 있는 유서 깊은 리젠트가(Regent Street)에 있는 새빌로우 거리 이름을 따서 새빌로우 스타일(Savile Row Style)이라고도 하며¹¹⁾ 테일러링이라는 용어도 여기서 유래되었다.¹²⁾ 영국의 정통 남성복은 고급소재와 장인들에 의한 세련된 재단과 수제 봉제방식을 통해 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실루엣을 특징으로 하며, 신사복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윈저공(Duke of Windsor)이 애용하던 스타일이기도 하다. 실루엣은 얇은 1장 패드를 넣은 자연스러운 어깨에 2~3개의 앞여밈 단추와 뒤트임이 양쪽에 있거나 중앙에 있는 싱글 브레스티드 스타일로 현대 남성복의 기본형이라 불린다.¹³⁾

007시리즈에 배경이 된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시대적 흐름과 패션의 흐름을 살펴보면 1960년대는 새로운 창조력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시대로 1961년 소련의 유인 우주비행이 성공하였고, 1963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1968년 프랑스의 5월 혁명, 1969년 인류 최초의 달 착륙 등 큰 사건들이 세계를 흔들었다. 또한, 컬러TV, 영화, 잡지 등 대중매

체의 발달로 대중문화가 급속히 발전하였고, 이전에 중심세대가 아니었던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독자적인 세계를 갈구 하게 되었다.¹⁴⁾ 1960년대 이후 영국의 패션은 1, 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 붐 세대를 중심으로 등장한 청소년 하위문화와 대중예술인 팝 아트가 아방가르드 스타일의 트렌드를 제시하기 시작한 시기로 마치 10대와 20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듯했다.¹⁵⁾ 그 중심을 런던으로 하여 기성세대의 모드와는 전혀 다른 영 패션의 시대로 'Swinging London'¹⁶⁾ 이라 불리며 단순함과 실용성을 기본으로 한 젊은 감각의 스타일¹⁷⁾이 유행하였다. 한편, 풍성한 플레이어스커트나 넓고 가는 벨트, 비대칭구형의 주름 등으로 더욱 성숙하고 요염한 매력을 주는 어른스럽고 관능적인 스타일¹⁸⁾도 유행했다.

1960년대가 격동적(Swinging)이고 낙천적이며 혁신에 찬 시대였다면 1970년대는 마법에 각성한 듯한 느낌과 불황, 부정적인 분위기를 가졌고, 최후에는 핑크라고 하는 울부짖는 듯한 파괴적인 혼란을 일으켰다.¹⁹⁾ 1970년대는 세계적인 오일쇼크로 경제가 침체하여 영국에서도 실업률이 증가하였으나 물가상승은 생활수준을 향상시켰고 다시 경제적 안정을 찾게 되었다. 또한, 1960년대 비해 여성들이 전문직으로 활발한 사회진출을 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생활 양식이 변화되었다.²⁰⁾ 여성복은 컨트리 스타일의 전원적인 소박한 자연 감각의 꽃 프린트, 부드러운 내추럴 색상이나 파스텔 톤의 의상이 유행하였고, 핀턱, 풍성한 주름, 프릴, 러플 등 로맨틱한 여성스러운 디테일이 강조되었다. 남성복은 영국의 상류층 남성들의 정통 테일러링에 기반을 둔 캐주얼 스타일을 지칭하는 브리티시 트레이디셔널이었다.²¹⁾ 또한, 스트리트 패션에서 강한 영향을 받아 핑크 룩이 출현하였다. 획일화된 패션을 거부하며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는 핑크는 파괴적,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옷차림을 시도하였다. 모히칸의 헤어스타일, 공포감을 자아내는 메이크업, 폭력적 이미지의 액세서리, 더럽고 혐오스러운 복장 등 문명 파괴적인 양상을 띠므로써 그들의 근본인 허무주의, 히스테리, 폭력을 극적으로 복식에 표현하였다.²²⁾

영국의 아방가르드는 서양의 봉제 전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동양적 시각에 의한 옷의 구조를 보여주는 프랑크스의 아방가르드가 아니라, 자신들의 참신한 전통적인 서양의 봉제에 바탕을 둔 테일러링에 하위문화를 패션에 접목시켜서 하이패션에 끊임없는 호기심과 디자인 소스를 공급하고 전통적인 것을 재해석하여 새로움을 창출하였다.²³⁾

1980년대는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말미암은 에너지 파동의 여파로 세계 경제는 침체하였고 절약하는 소비 풍조와 더불어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대와 생활 영역의 확대는 생활수준과 소득의 증가를 가져와 여가를 더 중시하게 되었다.²⁴⁾ 80년대 초는 70년대 말의 페미닌 스타일에 속하는 품격 있는 관능미를 가진 글래머 룩²⁵⁾이 이어졌고, 영국 다이애나 세자비의 낭만적인 스타일은 영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 메이크업은 70년대 이후 특히 눈 주위가 더 진해지는 경향이 이어졌고, 헤어는 컬이 들어간 펴 헤어가 유행하였다.²⁶⁾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대하면서 전문적이고 활동적이며 어깨에 패드가 들어간 남성적 실루엣의 재킷과 스커트나 바지의 '파워 드레스(power-dressing)' 슈트가 선보였다. 80년대 초반에는 재패니즈 스타일의 영향에 의한 무채색과 내추럴한 색채가 지배적이었고 블랙과 그레이, 카키, 베이지 등이 유행하였으나 중반 이후부터는 선명한 색조와 밝고 연한 색조가 유행하였다. 후반기에는 에콜로지와 관련되어 그린이나 블루가 등장하였고 모노톤에 관심을 가게 되면서 블랙이 주요한 색채로 화이트와 함께 활용되었다.²⁷⁾ 남성복은 유명 디자이너들이 남성 디자이너 캐릭터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패션쇼와 살롱 등이 인기 있었다.²⁸⁾ 남성복의 트렌드는 남성적인 룩과 앤드로지너스 룩의 형태로 나누어 나타났다. 가죽 재킷, 진 등으로 남성적인 요소가 가미된 스타일이 대중화되었고, 80년대 후반이 되면서 남성복은 다채롭고 편안한 스타일의 캐주얼 룩이 주를 이루었다.²⁹⁾

1990년대 과학의 진보는 세계를 정보화 시대로 변화시키며 글로벌리즘이 부각되었다.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급격히 늘어나고 개인용 휴대전화의 보급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세계 각국의 정보가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서 말 빠르게 각국에 전달되며 지역적 차이를 좁히며 보다 세분화되고 개성화되어

가는 경향을 띠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이르러 비비안 웨스트우드, 폴 스미스, 존 갈리아노, 알렉산더 맥퀸, 후세인 살라안 등 디자이너들의 활동은 영국 패션의 특징 중 하나인 드라마틱한 쇼의 연출, 예술적 조형성, 다양한 소재의 사용과 테크놀러지의 결합 등이 미래의 패션을 보다 가까운 진보적 형태로 간주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³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인터넷을 통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의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점점 더 개방화되고 각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정보화 시대가 되었다. 패션도성의 혼돈현상인 양성화 현상이 증대되면서 남녀구분이 불분명한 유니섹스의 개념이 아닌, 남녀 의복의 특징을 차용하는 패션이 두드러지고 양성 간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너지면서 역할분담의 차이도 좁혀지고 있다. 영국의 패션은 계절이나 시대를 초월한 아이템이나 소재, 색상의 'vintage'와 'Layering', 'Mix & Match', 'Anti Fashion' 등을 통해 조화를 이루지 못한 듯한 당혹스러우며 자유로운 캐주얼웨어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³¹⁾

IV. 시대별 본드와 본드 걸의 이미지 변화

1. 시대별 본드 이미지

007 시리즈는 1960년대에 6편의 시리즈가 제작되었고 제작자가 다른 번외로 1편이 상영되었다. 1대 제임스 본드인 손 코너리는 원작 소설의 이미지가 가깝게 수려한 외모에 다소 거친 남자다운 와일드한 행동과 더불어 빈틈없이 세련된 신사로 등장한다. 의상은 네이비, 블랙, 그레이, 베이지 색상의 수트 차림이나 제복차림이 많다. 잠수복, 비행복, 캐주얼웨어, 스포츠웨어 등을 착용하는 경우나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2:8 가르마의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으로 상처 없이 살아남는 불사신 같은 영웅적 이미지로 그려진다. 또한, 남성적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자신감과 여성을 가볍게 즐기는 대상으로 여기며 때로는 여성에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명령하는 남

성 우월주의적 성향이 짙게 표현된다.

1970년대는 5편의 시리즈가 제작되었고, 3대 본드인 로저 무어는 1대 제임스본드의 수려한 외모에 냉철함 보다는 부드러움과 위트 있는 유머를 신사다움에 추가하여 플레이보이로서의 이미지를 이끌어낸다. 70년대 당시 성공한 사회인으로 보이기 위해 착용하던 어두운 색상의 부드러운 질감의 소재로 제작한 더블브레스트의 파워 수트(power suits)³²⁾와 블레이저를³³⁾ 착용했다. 색상은 깔끔한 네이비, 베이지, 그레이로 착용하고 패턴물이 있는 화려한 넥타이와 드레스 셔츠의 색상은 블랙, 베이지, 그레이 등으로 상류사회의 이미지를 소화해 냈다. 특히, 명품시계나 명품 자동차를 이용한 비밀무기는 본드의 고급 취향을 잘 표현해 주었다. 헤어는 밝은 브라운에 앞머리를 약간 앞으로 내어 뒤로 빗어 올린 스타일로 정갈한 이미지의 엘리트적이며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1980년대는 총 5편의 시리즈가 제작되었고, 3대 본드 로저 무어에서 4대 본드 티모시 달튼으로 바뀌면서 수려한 외모와 깔끔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고전적인 본드의 이미지인 날카롭고 진지하며 냉정한 킬러의 이미지로 그려진다.³⁴⁾ 80년대는 본드의 옷차림이 캐주얼한 카디건, 오픈칼라 셔츠, 가죽점퍼, 터틀넥 스웨터 등의 등장 빈도가 높아지면서 편안해 보이는 차림이 두드러진다. 4대 본드는 기존 본드의 정갈한 이미지 탈피하여 다소 자유롭게 흐트러진 짙은 브라운 헤어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옷차림으로 등장하며 격투 후 흐트러진 모습이나 본드 걸에게 연민을 갖는다든지,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 등을 보이며 인간의 내면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1990년대는 총 3편의 시리즈가 제작되었고, 5대 본드로 피어슨 브로스넬이 등장하면서 3대 본드였던 로저 무어의 수려하고 잘생긴 외모와 장난스런 말투로 다시 돌아와 당당하면서도 부드럽고 맨디한 신사의 이미지로 그려진다. 짙은 브라운 헤어를 깔끔하게 뒤로 넘긴 맨디 올 백 스타일에 정갈한 수트 차림의 옷차림이 많이 등장한다. 여성편력이 대단하지만 임무를 수행함에는 본드 걸과 힘을 합하거나 때로는 도움을 받으며 적을 무찌른다. 또한, 이제까지 본드

〈표 1〉 시대별 본드의 주요 의상 특징과 이미지

년대	년도	편	본드 역	의상 특징과 이미지
60년대	1962	1	손 코너리	-차분한 톤의 그레이, 네이비, 베이지의 영국 정통 싱글 브레스티드 수트 차림
	1963	2		-화이트 색상의 드레스셔츠와 넥타이
	1964	3		-무지나 조직감 있는 어두운 계열 색상의 넥타이 착용
	1965	4		-중절모와 베스트를 갖춰 입은 쓰리피스 수트 차림
	1967	5		-모든 복장에 정갈한 2:8가르마를 뒤로 넘겨 빗은 브라운 헤어스타일로 전혀 흐트러짐이 없음
70년대	1969	6	조지 래젠비	-모든 복장에 정갈한 2:8가르마를 뒤로 넘겨 빗은 브라운 헤어스타일로 전혀 흐트러짐이 없음
	1971	7	손 코너리	-냉철하고 강인하며 품위 있고 남성 우월주의적 성향의 성숙한 마초 맨의 이미지
	1973	8	로저 무어	-밝은 톤의 네이비, 베이지, 아이보리로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나 세퍼레이트 수트, 코트 차림
	1974	9		-스트라이프, 체크문양의 재킷과 대비되는 색상이나 사선 스트라이프의 넥타이
	1977	10		-노타이 스타일이나 티틀백에 스포츠재킷을 착용하거나 사파리재킷차림의 캐주얼한 차림
	1979	11		-2:8 가르마의 블론드 헤어로 앞머리를 앞으로 부드럽게 빗어 넘긴 부드러운 헤어스타일
1981	12	-품위 있는 세련된 플레이보이 스타일로 윌트와 매너 있는 도시적 신사의 이미지		
80년대	1983	13	티모시 달튼	-어두운 톤의 네이비나 베이지로 싱글 브레스티드 수트
	1985	14		-스트라이프 재킷에 차분한 톤의 넥타이
90년대	1987	15	피어스 브로스넌	-캐주얼한 점퍼나 셔츠
	1989	16		-가르마가 불분명한 자연스럽게 빗어 넘긴 올백 스타일
	1995	17		-냉철하고 남자다운 강인함과 인간다운 내면을 드러내는 이미지
	1997	18		-밝은 톤의 그레이, 베이지, 네이비로 싱글 브레스티드 수트와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
00년대	1999	19	다니엘 크레이그	-블루나 아이보리 계열의 재킷이나 셔츠, 작업복, 전투복
	2002	20		-댄디 올백 헤어스타일로 품위와 이지적 매력
	2006	21		-수려한 외모와 윌트있는 말투에 당당하면서도 부드럽고 댄디한 신사의 이미지
				-블랙 수트와 블랙 셔츠, 모노톤 의상
				-화이트 색상의 드레스 셔츠와 솔리드 넥타이
				-임무수행 시 캐주얼한 티셔츠, 셔츠, 점퍼 착용
				-다소 짧고 거친 듯 흐트러진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
				-냉철하고 강인하며 날렵한 몸놀림에 다부진 체력에 평범한 옷차림과 감수성을 가진 내향적 성격의 이미지

의 완벽한 인간상에서 벗어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여자의 속입수에 넘어가기도 하며 본드 걸과의 마지막 로맨스 장면도 사라진다.

2000년대는 2편의 시리즈가 제작되었고 2008년 22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20편에는 5대 본드 피어스 브로스넌이 21편에는 6대 본드 다니엘 크레이그가 등장한다. 본드는 엄청난 고문을 당하거나 투옥생활로 영망진창이 된 모습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절대적으로 본드를 지원해 주던 영국본부에서도 내몰리기도 한다. 또한, 적의 여자 스파이에게 죽음을 당할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본드보다 앞서 임수 수행을 하는 본드 걸을 뒤쫓아 다니기도 한다. 본드 걸은 자신의 힘으로 적을 대항하는 반면, 본드는 현실과 너

무 동떨어진 첨단 장비의 힘을 빌려 임수를 수행하는 경향이 더욱 짙어진다. 또한, 헝클어진 옷차림이나 헤어, 대강 걸친 듯한 캐주얼 의상 등으로 평범함을 보여준다. 늘 옷차림에 완벽했던 본드가 본드 걸이 골라주는 옷을 입거나 연정을 느낀 본드 걸에게 배신당하기도 한다. 〈표 1〉은 시대별 본드의 주요 의상 특징과 이미지를 정리한 것이다.

2. 연대별 본드 걸의 이미지

1962년 '007' 시리즈 첫 편의 1대 본드 걸 우슬라 안드레스(Ursula Andress)는 바다 쪽에서 걸어 나오는 환상적인 비키니 차림의 장면으로 관능적인 본드

<표 2> 시대별 본드 걸의 직업 및 주요 의상 특징과 이미지

년대	년도	번	본드 걸의 직업	의상 특징과 이미지
60년대	1962	1	조개잡이 처녀	관능적인 몸매와 금발로 세상물정 모르는 순수하고 나약한 역할로 아이보리의 비키니와 셔츠, 몸에 피트 되는 핑크의 치파우 차림
	1963	2	러시아의 비전문 첩보원	정숙하지만 관능적 몸매에 본드를 따르는 단순하고 유아적인 역할로 파스텔 톤의 원피스나 투피스의 페미닌한 스타일
	1964	3	악당의 비행기 조종사	볼륨 있는 몸매와 금발에 이지적 이미지로 블랙, 베이지, 퍼플 의 몸에 붙는 바지와 블라우스, 투피스 차림
	1965	4	악당 두목의 애인	관능적인 풍만한 몸매와 밝은 브라운 헤어의 뛰어난 미모로 블랙의 비키니와 원피스 수영복차림과 화이트의 페미닌한 원피스차림
	1967	5	본드와 위장 결혼 하는 일본인 요원	동양인으로 볼륨 있는 성숙한 몸매와 블랙헤어에 소녀 같은 순수함과 순종적인 역할로 화이트의 기모노와 아이보리의 비키니 차림
	1969	6	유럽 최대범죄 조직 두목의 딸	볼륨 있는 몸매와 금발의 도도함과 나약함을 지닌 역할로 그린, 옐로우 의 원피스와 블랙, 화이트의 롱드레스의 페미닌한 스타일
70년대	1971	7	다이아몬드 밀수조직의 일원	관능적 몸매에 레드헤어의 활동적인 미국여성이지만 본드에게 매료당하면서 순종적으로 따르는 역할로 블랙, 퍼플의 란제리, 비키니차림
	1973	8	카드 점성술사	볼륨있는 몸매에 브라운의 롱헤어로 천진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미성숙한 역할로 레드, 화이트, 스카이블루, 아이보리의 롱 드레스차림
	1974	9	영국 정보부 요원	늘씬한 몸매에 금발의 정보요원으로서 본드의 관심을 끄는데 노력하는 유아적인 역할로 스카이블루, 퍼플, 아이보리의 란제리, 롱 드레스차림
	1977	10	소련 정보부 요원	늘씬한 몸매와 브라운 헤어에 다소 냉소적이며 지적인 여성으로 블랙의 롱 드레스와 아이보리와 브라운의 투피스차림
	1979	11	NASA 공학박사	짧고 늘씬한 몸매와 금발의 지적이며 우아한 이미지로 베이지, 아이보리의 정장과 블랙의 롱 드레스차림
80년대	1981	12	석궁	다소 마른 몸매와 브라운의 롱 헤어로 이지적인 이미지로 아이보리, 브라운 의 원피스와 레드, 화이트의 롱 드레스, 브라운 계열의 평상복차림
	1983	13	서커스단 단장	마른 몸매에 냉철하며 강한 인상의 성숙한 여성으로 아이보리의 란제리, 그레이, 네이비의 투피스, 스카이블루 롱 드레스차림
	1985	14	대부의 딸	늘씬한 몸매에 웨이브 진 금발에 강한 눈 화장을 한 이지적인 이미지로 아이보리, 스카이블루의 롱 드레스와 원피스차림
	1987	15	첼리스트	마른 몸매에 금발의 지적이며 품위 있고 순진한 역할로 블랙, 아이보리 의 원피스와 아이보리, 블루, 라이트오렌지의 롱 드레스차림
	1989	16	영국 정보요원	탄력 있는 몸매에 금발에서 블랙으로 염색한 쇼트컷과 이지적인 이미지로 베이지, 아이보리의 원피스와 블랙, 스카이블루의 롱드레스 차림
90년대	1995	17	컴퓨터 프로그래머	늘씬한 몸매에 여성스럽고 지적인 역할로 브라운의 짧은 헤어스타일과 카디건과 미니스커트, 밀리터리룩 차림
	1997	18	중국의 전문 첩보원	동양여성으로 날씬하고 근육질의 강한 체력으로 블루계열의 드레스와 셔츠와 바지, 전투복차림
	1999	19	석유업계 거물의 딸	늘씬한 몸매의 강한 질투심을 자제 못하는 요부 스타일로 어두운 톤의 그레이, 레드, 퍼플 등의 롱드레스차림
00년대	2002	20	미국 CIA 요원	늘씬하고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와 상큼함을 지닌 짧은 헤어스타일로 오렌지, 블루의 비키니와 롱드레스, 밀리터리룩과 전투복 차림
	2006	21	영국 정보국의 회계사	늘씬한 몸매에 블랙헤어의 이지적인 이미지에 블랙슈트와 트랜치코트, 아이보리의 슈트 레드, 퍼플, 블랙의 롱드레스, 레드, 화이트의 원피스차림

걸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창조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장면은 007시리즈의 20번째인 2002년의 '어나더데이 (Die Another Day)'의 본드걸이 오렌지 색상의 비키니차림으로 바다 쪽에서 등장하며 초대 본드걸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재현되기도 했다. 60년대의 본드 걸은 역할에 큰 비중 없이 풍만한 관능적인 몸매와 부풀린 금발의 헤어스타일이나 굵은 웨이브에 업스타일로 등장하여 단지 본드의 애인역할로써 로맨

〈표 3〉 시대별 본드와 본드 걸의 이미지

년대	제임스 본드의 이미지 연출	본드 걸의 이미지
1960		
1970		
1980		
1990		
2000		

스 장면에 적합한 에로틱한 이미지로 연출되었다. 이러한 '마블린 먼로' 풍의 육감적인 스타일은 남성들의 로맨스로 영화적 '맛'을 살리는 양념 역할로 비쳐졌다.³⁵⁾ 성숙하고 관능적인 몸매와는 상반되는 유아적인 순수성이나 미숙함과 더불어 본드에게 매혹 당해 무조건적으로 본드에게 의지하거나 순종한다. 또한,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스카이블루, 핑크, 연보라 등

의 파스텔 톤의 노출이 많은 비키니와 란제리 차림으로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에 충실한 여성상으로 연출되었다.

1970년대는 60년에 이어 본드 걸은 큰 이미지의 변화는 없었으나 시대적 배경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들의 사회진출로 직업을 갖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본드 걸도 다소의 변화를 보였다. 미국여성이 본드

걸로 등장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미지의 여성과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금발에 웨이브 진 롱 헤어가 많고 강한 이미지를 보이다가도 본드에게 문책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고 나면 아무런 반항 없이 본드에게 무조건 순종한다. 때로는 본드의 임무수행에 이용당해 죽거나 큰 역할 없이 본드의 즐기는 성적대상으로 등장한다. 의상은 블랙이나 화이트, 베이지 색상의 드레스가 모던하게 연출되지만, 비키니와 관제리 차림의 장면들은 본드를 유혹하거나 적에게 납치당해 강제적으로 입게 되는 설정으로 남성들의 성적대상으로의 역할에 치중되어 있다.

1980년대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활동적이며 남성적인 스타일이 유행하였고 직장에서 임원의 지위에 오르는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본드 걸의 이미지도 변화하여 전문 직업을 가진 다소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지닌 역할들이 등장하였다. 외모도 마른 듯 늘씬한 몸매에 이지적인 이미지로 투피스와 원피스의 평상복차림도 많아지고 블랙, 그레이, 네이비 등의 다소 어두운 의상의 색상이 등장한다.

1990년대 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탈 이데올로기 현상은 문화의 다원화 경향을 가속화 하였고, 남성 중심 사회에 여성이 동등한 위치로 자리 잡으며 007 시리즈의 마지막 장면의 로맨스 공식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전의 본드 걸은 본드의 애인 정도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본드 걸 역할의 첫째 조건은 섹시한 몸매였다. 단순히 예쁘기만 할 뿐 다른 재능을 볼 수 없다는 비판도 함께하며 시대착오적인 본드 영화의 마초성에 대한 주된 비판 대상이기도 했다.³⁶⁾ 그러나 90년대 본드 걸의 이미지를 크게 변화하여 본드 걸의 직업은 더욱 구체화 되어 역할에 적합한 전문 직업이 등장하고 의상도 세련된 평상복과 드레스가 조화 있게 등장하며 본드와의 로맨스 장면 없이 끝나기도 한다. 또한, 제임스 본드의 상사 'M'이 여자로 바뀌면서 비중 있는 조연으로 등장하여 본드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2000년대는 90년대에 이어 본드 걸의 역할이 본드를 보조하는 차원이 아닌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 미

국의 CIA 요원이나 영국정보국의 회계 담당자 등으로 본드가 수행하는 임무와 관련이 깊은 전문직 여성으로 본드의 임무에 깊은 연관성을 갖고 본드와 일을 수행한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강인하며 지적인 본드의 동료로써 본드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본드의 생명을 구해주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본드는 최첨단의 장비를 동원하여 적과 싸우지만, 본드 걸은 몸을 부딪쳐 필사적으로 적과 대응하는 장면이 두드러진다. <표 2>는 년대별 본드 걸의 직업 및 주요 의상특징과 이미지를 정리한 것이고 <표 3>은 본드와 본드 걸의 시대별 이미지를 정리한 것이다.

IV. 영화 '007' 시리즈 주인공의 주요 의상 아이템과 색상

남자 주인공인 본드의 의상은 근무지나 출장 시 <그림 1>과 같은 수트 차림이 가장 많고 만찬초대나 카지노, 경마장, 결혼식에는 <그림 2>와 같은 블랙이나 아이보리 색상의 정통 영국식 턱시도와 <그림 3>과 같은 20세기 초 영국 사회의 남성복의 기본 복장이 된 프록코트를 톱 헤트³⁷⁾와 함께 그레이 색상으로 격식을 갖추어 착용하였다. 업무상 승마, 사격, 사냥, 골프 등의 레저 활동 시 블레이저, 스포츠재킷, 사파리재킷 등 <그림 4>와 같은 다양한 세퍼레이트 수트를 착용하였고 그 외 잠수복과 스키복, 우주복 등의 차림으로 등장한다.

본드의 주요 의상의 색상을 살펴보면 총 21편의 시리즈 중 가장 빈도수가 많은 색상은 블랙이나 아이보리로 주로 예복차림으로 매 편 등장한다. 수트 색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색은 그레이 계열로 총 20편에서 매번 1회~3회 정도로 톤이나 문양이 다르게 착용하였다. 다음으로는 총 13편에서 네이비 계열을 착용하였고 총 10편에서 베이지 계열을 착용하였다. 특히 베이지나 아이보리 계열은 해변이나 열대지방이 무대가 될 때 밝은 톤으로 착용하였다. 또한, 총 7편에서 브라운계열을 착용하였고 수트의 문양은 솔리드, 스트라이프, 체크 순으로 솔리드 소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여자 주인공인 본드 걸의 경우는 심플한 디자인에



<그림 1> 2편
1963년 DVD 캡처



<그림 2> 17편
1995년 DVD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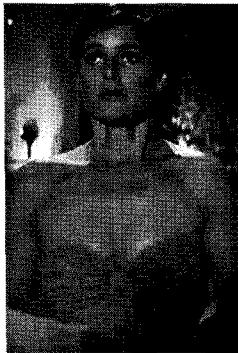
<그림 3> 14편
1985년 DVD 캡처



<그림 4> 13편
1983년 DVD 캡처



<그림 5> 1편
1962년 DVD 캡처



<그림 6> 16편
1989년 DVD 캡처



<그림 7> 9편
1974년 DVD 캡처



<그림 8> 13편
1983년 DVD 캡처

<표 4> 007시리즈 주인공의 주요 의상 아이템의 특징

구분	아이템	스타일	색상/문양
본드	수트	싱글 브레스티드, 더블 브레스티드의 브리티시스타일	네이비, 그레이, 베이지의 솔리드 소재
	세퍼레이트 수트	블레이저, 스포츠재킷, 사파리재킷	베이지, 브라운의 스트라이프나 체크
	턱시도, 플록코트	턱시도에는 보타이, 플록코트에는 톱 해트를 착용한 영국 정통 예복 스타일	블랙, 아이보리, 그레이
	넥타이	포인 핸드 노트의 일반적인 스타일과 예복의 보타이	네이비, 그레이, 브라운, 레드 계열에 무지나 사선의 스트라이프
본드 걸	수영복	디테일이 배제된 심플한 형태의 비키니 스타일	아이보리, 퍼플, 블랙, 오렌지의 솔리드 소재
	드레스	디테일이 배제된 심플하고 슬림한 형태의 노출이 많은 롱 드레스 스타일	스카이블루, 퍼플, 블랙, 레드 등의 솔리드 소재
	란제리, 나이트가운	어깨 끈으로 된 심플한 스타일의 란제리와, 광택이나 비치는 소재의 나이트가운	아이보리, 스카이블루, 블랙의 솔리드 소재

솔리드 소재의 <그림 5>와 같은 비키니 차림과 더불어 어 만찬초대나 카지노, 본드와 식사할 때는 롱 드레

스를 착용하였다. 롱 드레스는 <그림 6>과 같이 디테일이 없는 심플하고 슬림한 형태로 어깨선과 가슴선, 등을 드러낸 노출이 많은 스타일이 대부분이다. 그 이외의 등장하는 본드 걸의 주요 아이템의 하나로 <그림 7>과 같은 란제리나 <그림 8>과 같은 나이트가운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본드 걸의 의상 중 가장 빈도수가 많은 아이템인 롱 드레스는 스카이블루 색상이 총 10편에 등장하여 빈도수가 높으며, 주로 본드와 로맨스 장면에서 여성스런 이미지를 연출할 때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블랙과 레드, 퍼플 순으로 이지적이고 섹시하며 유혹적인 색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레드색상의 의상은 적어 본드에게 보낸 첩자나 본드를 유혹하는 무희, 적의 요원, 적에 포로로 잡힌 본드 걸, 적의 애인, 악당역의 본드 걸, 본드를 배신하는 본드 걸 등의 의상 색상으로 사용되어 대부분 음모나 배신, 갈등 등이 드러나는 심리적 색상으로 사용되었다. <표 4>는 007 시리즈의 본드와 본드 걸의 주요 의상 아이템을 정리한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46년간 총 21편의 영화로 제작된 '007' 시리즈의 시대별 남·녀 주인공의 이상적 이미지와 역할의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007' 시리즈는 한 남자의 영웅주의적 성향이 강한 오락성 영화이지만 1990년대 이전과 이후로 등장하는 남·녀 주인공의 이미지가 크게 변화하였다. 즉 1990년대 이전에 본드는 상류사회의 엘리트적이며 영웅적 남성의 이미지로 그려졌으며, 본드 걸은 금발에 백치의 관능미를 지닌 순종적인 여성으로 본드의 성적 상대로 그려졌다. 반면, 1990년대 이후에 본드는 여전히 영국의 귀족사회가 밀바탕은 되지만 남성 우월주의적 성향이 점차 사라지고 편안한 옷차림과 더불어 적에게 잡히거나 고문당하며 인간적 고뇌가 느껴지는 이미지로 그려졌다. 한편, 본드 걸은 활동적이고 강인하며 건강미 넘치는 샤프한 외모의 전문전해를 지닌 본드의 동료로서 그려졌다.

둘째, 본드는 기본적으로 윤리와 격식을 즐기며

스포츠를 생활화함으로써 페어플레이 정신과 신사로서의 태도를 끝까지 지키는 영국 전통 귀족사회의 성숙하고 품위 있는 남성상을 공통된 이미지로 하였다. 이러한 이미지가 1990년대 이전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호트러짐 없는 슈트 차림의 완벽한 첩보원의 이미지로 그려졌고, 1990년대 이후에는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 등장하며 간혹 호트러진 평범한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한편, 본드 걸은 기본적으로 성숙하고 품위 있으며 아름다운 몸매의 이미지가 공통점으로 그려졌다. 이러한 이미지가 1990년대 이전에는 풍만 육체에 페미닌한 여성스러운 차림에 소녀다운 순수성을 지닌 이미지로 그려졌고, 1990년대 이후에는 슈트와 작업복 등 활동적인 의상과 여성스러운 의상이 적절히 조화되어 샤프한 외모와 근육질의 몸매에 강인하며 지적인 이미지로 그려졌다.

셋째, 본드는 시리즈 속에서 6명의 배우가 '007'이라는 특정한 한 명의 영국첩보원으로 등장하지만 본드 걸은 다양한 직업의 여자들이 등장한다. 1960년대 본드 걸은 조개잡이 처녀, 러시아의 비전문 첩보원, 악당의 비행기 조종사가 등장하고 1970년대는 다이아몬드 밀수 조직의 일원, 카드 점성술사, 영국 정보부 요원, 소련 정보요원 등의 직업이 등장하였으나 역할의 비중은 적었다. 1980년대는 석공, 서커스단의 단장, 대부의 딸, 첼리스트, 영국 정보요원 등의 여러 분야의 전문직 직업이 등장하고,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중국 전문 첩보원, 거물의 딸, 미국 CIA 요원, 영국정보국의 회계사 등 본드의 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문직 직업이 등장하며 역할의 변화를 보였다.

넷째, 본드의 상류계급의 이미지는 턱시도와 슈트를 위주로 블랙, 그레이, 네이비, 베이지, 브라운, 아이보리 계열을 주로 사용하고 헤어스타일은 깔끔하게 2:8 가르마나 맨디 올백스타일로 품위 있고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격투와 첩보활동에서도 슈트 차림이 많이 등장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의상에 캐주얼한 차림의 빈도수가 증가되면서 보다 편안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또한, 본드 걸의 주요 아이템은 비키니, 란제리, 롱 드레스로 스카이블루, 퍼플, 블랙 등의 색상에 디테일 없는 심플한

의상이 대표적이다. 헤어는 금발에 웨이브 진 긴 머리를 부풀리거나 틀어 올려 여성스러운 페미닌한 이미지로 연출하였다. 또한, 상황과 상관없이 노출이 많은 옷차림으로 등장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수트나 원피스의 평상복이나 작업복, 전투복 등의 차림이 많아지고 역할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특히, 본드 걸의 레드색상의 의상은 유혹, 적, 배신 등을 표현하는 심리적 색상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한 영웅적 인물인 본드를 주인공으로 46년간 제작되고 있는 007시리즈를 시대별로 분석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동일한 이미지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표현되고 있음 이끌어냈다. 또한, 본드와 그 상대역인 여러 본드 걸의 이미지변화가 영화 의상과 외모, 직업 등을 통해 반영되고 있음을 고찰한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이혜주, 이상만 (2006). *감성경제와 Brand Design management*. 서울: 형설출판사, p. 52.
- 이연영, 이인성 (2007). 영화에 나타난 전통복식의 현대적 표현과 미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영화<조선남녀상열지사-스캔들>과 <올란서생>을 중심으로-. *복식*, 57(7), pp. 122-136.
- 장누리 (2006). *영화 007 시리즈에 나타난 본드 걸의 스타일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2.
- 송수원, 김민자 (2006).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 세계에 나타난 영국적 이미지. *복식*, 56(2), p. 3.
- De ka Haye, Amy (1997). *The cutting edge:50 years of British Fashion 1947-1997*. New York: Overlook Press, p. 196; 송수원, 김민자 (2006).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 세계에 나타난 영국적 이미지. *복식*, 56(2), p. 3에서 재인용.
- 스포츠맨십(sportsmanship)이라는 용어도 영국의 기사도 정신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사도란 스포츠에서의 '페어플레이(fair play)'와 일체를 이루는 말이기도 하다.
- 홍정민 (2005). *현대 영국패션의 디자인 특성*.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
- 신성철 외 (1996). *미국문화와 영국문화*. 서울: 문경출판사, p. 296.
- 조지 브럼멜(George Bryan Brummel:1778-1849) 브럼멜은 그 당시 남자들이 착용하던 몸에 붙는 반바지에서 현재 스타일의 바지를 착용하고 고급 소재, 색의 조화, 맞춤양복 등으로 장식이 없는 심플한 의복을 과장되지 않도록 조화를 추구하며 착용하면서 새로운 남자 패션의 대중화 시킨 브리티시 맨디이다.
- 권자영 (2000). *현대 영국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
- 장성은, 이종숙 (2008).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토탈 패션·뷰티코디네이션*. 서울: 경춘사, p. 203.
- 송은영 (2003). *현대 영국 남성복의 조형성 연구-Paul Smith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 남윤자, 이형숙 (2003). *남성복 패턴메이킹*. 서울: 교학사, p. 68.
- 東京服飾文化研究財團 (2002). *ファッション18世紀から現代まで*. 東京: TASCHEM, p. 511.
- 권해기 (2002). *1960년대 영국 하위문화 패션에 관한 연구-대중음악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2.
- 'Swinging London(활기에 찬 런던)'이라는 말의 정확한 기원을 현대의 혼란 속에서 찾기란 어렵다. 몇몇 사람들은 그 말의 시조가 대중적인 TV 코미디언 Norman Vaughan의 'Swinging!Doggy!(행동거지가 좋은)'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 생겨났다고 한다. 그러나 'Telegraph Sunday'지의 편집장 John Anstey에 따르면 패션의 최고권의자인 Diana Vreeland가 처음으로 'Swinging'과 'London'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였으며, 이 두 단어가 함께 그 당시는 'Weekend Telegraph'의 1965년 4월 30일호에 처음 인쇄되었다고 한다. Bevis Hillier (1983). *The Style of the Century: 1900~1980*. 조규화 역 (2004). *20세기 패션: 1900-1980*. 서울: 수학사, pp. 196-197.
- 파리가 고급 의상과 전문적 수준의 기성복을 이끌어가고 있었지만 런던은 패셔너블한 틀에이지 스타일의 디자인과 소매업에 선두에 있었다. James Laver (1996). *Costume & Fashion. Revised expanded and updated edition*. London: Thames and Hudson, p. 261.
- 정홍숙 (2000).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390.
- Bevis Hillier (2004). *앞의 책*, pp. 261-263.
- 정홍숙 (2000). *앞의 책*, p. 395.
- 홍정민 (2005). *앞의 책*, p. 33.
- 송은영 (2003). *현대 영국 남성복의 조형성 연구-Paul Smith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0.
- 홍정민 (2005). *현대 영국 패션의 디자인 특성*.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9-34.
- 정홍숙 (2000). *앞의 책*, p. 398.
- 패션 디자인에서의 글래머는 엘레강스와 스타일의 공적 과시에 선정성을 더한 자극적인 스타일을 의미하며 소비와 관련해 성격으로 개발된 매력적인 이미지이다. 글래머 룩은 시기별로 블루밍 에이지 글래머(19세기말), 골든 에이지 글래머(1920-1950년대 중반), 팝 에이지 글래머(1950년대 말-1970년대), 글래머 르네상스(1980년대 이후)에 걸쳐 진행되면서, 쿠티르와 헐리우드 영화스타, 그리고 팝 스타들과 하위문화에 관련된 스타일로 나타난다. 한수연, 양숙희 (2006). *현대패션에 표현된 글래머 룩에 관한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30(8), pp. 1288-1300.

- 26) David Bon (1981). *The guinness Guide to twentieth century fashion*. 정현숙 역 (2000). *20세기 패션* (개정판). 서울: 경춘사, p. 261.
- 27) 금기숙 외 (2002). *현대패션 100년*. 서울: 교문사, p. 274.
- 28) James Laver (1996) *op. cit.*, pp. 275-277.
- 29) 금기숙 외 (2002). *앞의 책*, pp. 274-275.
- 30) 권자영 (2000). *현대영국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5.
- 31) 보그 (2008.10.17) london report. 자료검색일 2008.10.17. 자료 출처 http://www.vogue.co.kr/global/global_view
- 32) Phyllis G. Tortora, & Keith Eubank (1994). *Survey of Historic Costume*.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p. 493.
- 33) 블레이저는 스포츠 재킷과 제복에서 비롯되었는데, 블레이저의 발생은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보트 경기의 유니폼인 진홍색을 옷옷을 벗어 공중에 던질 때 불타는 듯한 진홍색의 진풍경을 보면 'Oh! blazing' 소리치면서 처음에는 진홍색을 블레이저라고 일컬어졌다는 설과 영국 해군의 옷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타이콘 패션 연구소 편저 (2000). *남자의 옷 이야기 I - 정장편*. 서울: 시공사, pp. 95-97.
- 34) 장성은, 이종숙 (2008). *앞의 책*, p. 261.
- 35) 조선일보(2007.8.24). 007 본드걸 섹시 미녀서 강한 여걸로. 자료검색일 2007.12.12. 자료출처 http://spn.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24/
- 36) 엠파스 닷컴(2006.4.17). 우린 본드보다 '본드걸'에 더 관심이 있다. 자료검색일 2007.5.27. 자료출처 <http://movie.empas.com/focus/read.tsp?menu=4&type=24>
- 37) Maria Costantino (1997). *Men's Fashion-In the Twentieth Century*. CA: Costume & Fashion press, pp. 6-8.